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룻짙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이사야 60,1-6

### 화답송



(후렴)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 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에페소 3,2.3ㄴ.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알렐루야.

## 복음 | 마태오 2,1-12

**영성체송**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성가 | 입당성가 [102]

영성체 [109]

## 예물준비 [106]

파견 [100]

## 미사 봉헌

### 연미사

이효경  
강건대 마리아  
이만제 원광남  
이정진 안토니오  
이정진 안토니오  
오승국 베네딕도  
오승국 베네딕도  
오승국 베네딕도

### 생미사

정다경 마리아  
이규완 안토니오, 이은경 헬렌  
맨하탄 공동체  
이영애 레지나, 이미진 쇼앤 그레이스  
이지연 안나레지나 생일축하  
이지연 안나레지나 생일 축하  
임국빈 토마스 아퀴나스 가정  
대녀들 영육건강  
민덕미 안젤라  
박아그네스, 알버트  
이종훈 바오로 가정  
양미숙 마리아 영육건강  
강호영 안드레아, 강순자 엘리사벳  
조성윤 바실리오 축일 축하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 봉헌

이안젤라  
박정자 로사  
이영애 레지나  
가족  
익명  
박혜화 도미니카  
최은자 세실리아  
표해심 카타리나

### 봉헌

익명  
이미숙 안나  
안선정 마리안나  
가족  
이영애 레지나  
이미진 쇼앤 그레이스  
임영희 골롬바  
이은경 헬렌  
성모회  
양복연  
이미숙 안나  
이미숙 안나  
박정자 로사  
학부모회  
복사단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월 5일	김유화	이태주	장민우	장민우	유정옥	김실비아 한테레사
1월 12일	김진수	송명근	김승연	김승연	김중선	조바실리오 김실비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1.1 성모마리아 1.2 바실리오, 그레고리오 1.4 엘리사벳 시튼  
1.5 신클레티카 1.17 안토니오 1.20 파비아노, 세바스티아노  
1.21 아네스 1.24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1.26 티모테오, 티토  
1.27 안젤라 1.28 토마스 아퀴나스 1.31 요한 보스코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2025년 친교실 봉사 안내**

1월	사목회
2월	요셉회, 성모회
3월	꾸리아
4월	학부모회
5월	연령회
6월	선교분과(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풍물패)
7월	청년(성서모임, 주보팀, 찬양팀)
8월	울뜨레아
9월	청년회
10월	학부모회
11월	꾸리아
12월	성모회, 요셉회

▶**설 합동 위령 미사**

일시: 1.26(주일) 9시 15분, 윗 성당  
신청: 친교실 안내데스크(연령회 담당) 마감: 1.19(주일)  
☺ 이름을 바르게 써 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설 명절 행사**

일시 및 장소: 1.26 미사 후, 친교실  
일정: 1)공동체 어르신들께 세배예절 2)전통놀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이날의 모든 단체별 모임은 설 행사로 대체됩니다.

▶**2025 '일년일독 성경통독' 안내**

2025년 새 성경통독표는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고 매일 와 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 으면서, 성경말씀을 새기는 감동,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성경통독을 마치신분은 사무실에 성경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일독 성경통독' 하신분** 유정옥 유스티나

**성경, 그 거룩한 독서에 대하여**

1. 성경은 모두 하느님의 영감으로 씌어졌다.
2. 성경은 신주단지기가 아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3. 사람들이 우리 집에, 우리 방에 들어왔을 때 성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4. 성경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나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에 있게 할 것이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의 마지막 책이 되어야 한다.
5. 성경이 모셔져 있는 책상을 제단처럼 여겨라. 그것은 사적 으로 모시고 있는 나의 감실이다.
6. 성경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7. 성경을 읽고 싶는데 만약 그대 안에서 입맛을 돋우지 못한 다면, 그대가 아프다는 신호다.
8. 우리의 기억 속에 성경 말씀이 풍요롭게 쌓이고, 흘러넘치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따로 외우고 다녀라.

▶**청년 겨울캠프**

장소: Tannersville, NY 일정 : 2.14~16(2박 3일)  
참가비: \$190(non-refunable depsit; \$120  
(스키 리프트 및 렌탈은 별도)  
문의: 진현중 빈첸시오 929.660.4456 카톡:loudryu123

▶**2025년도 본당 달력 배부**

필요하신 교우분들은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해성사 휴무 12/16/2024 ~ 1/12/2025**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새해,

하느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품기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옥토**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WONJO**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 clearlaser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I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8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25년 1월 1일) (요약) I

##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 I. 위기에 놓인 인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망의 희년인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에 가톨릭 교회는 희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행사인 희년을 거행합니다. 오늘날에도 희년은 해방을 가져다주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세우고자 노력하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때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고통받는 인류의 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다 함께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불의의 사슬을 끊고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II. 문화적 변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희년의 거행은 지상 재화가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불의와 불평등의 현재 상황에 맞서는 수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죄 많은 인류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구원의 용서를 주시므로써 생명의 선물을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간과하면,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착취와 억압의 논리가 다른 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의는 가난한 국가들을 덮어 빠뜨리는 부패로 더욱 심화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화적이며 구조적인 변화는, 공통되면서도 분화된 책임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딸이고 그분께 죄를 지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식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 III. 희망의 여정: 세 가지 제안

이 은총의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세상 만민이 삶의 존엄성을 되찾고 희망의 길을 다시 나서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000년 대희년에 하신 호소, 곧

“여러 국가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 배려해 보자는 그 호소를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겠다는 확고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특히 여기서 저는 생명의 문화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는, 성 바오로 6세 교황과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발자취를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하여 한 가지 더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전쟁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군비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제 기금 설립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 IV. 평화의 목표

2025년이 평화가 꽃피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 무장 해제된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참평화를 찾아 나섭시다. 무장 해제된 마음은 곧, 내것 내것 따지지 않는 마음, 이기심을 누그러뜨리고 타인에게 기꺼이 손 뻗으려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느님 앞에 죄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짓누르는 빛을 탐감할 준비가 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치고 모두가 더 나은 세상 건설에 소중한 자선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무장 해제는 모두가 할 일입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한 것들 곧, “미소, 우정의 작은 몸짓, 친절함 눈길, 기꺼이 귀 기울이는 경청, 선행”으로도 족합니다. 우리는 이 크고 작은 몸짓들을 통하여 평화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란히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처음 길을 나설 때에 비하여 변화했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평화의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것입니다.

바티칸에서, 2024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출처: <https://www.cbck.or.kr>]